

수시 이월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모집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는 것.

정시 수험생에게 넘어온 기회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여러 대학·학과에 합격한 학생은 한 곳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등록을 포기합니다. 대학은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총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수시 모집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획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인원은 정시로 넘겨서 선발합니다. 정시를 염두에 둔 학생 으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수능 난도가 수시 이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수능이 어려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나, 수능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아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가 많으면 수시 이월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시 이월 인원은 언제 공개되나요?

수시 총원 합격자 발표와 합격자 등록이 모두 마무리된 12월 말 이후,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2025학년에는 12월 24일 총원 등록이 마감되고, 5일이 지난 29일에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보통 몇 명이 이월되는지 궁금해요.

2025학년 수도권 주요 대학 중 수시 이월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연세대(131명)였습니다. 이는 정시 최종 모집 인원의 7.8%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고려대가 99명, 서울대가 49명으로 많았고, 인하대는 11명, 서울시립대는 9명만 이월됐습니다. 2024학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능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돼 최저 기준 충족이 어렵지 않았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수시 이월 인원이 많으면 정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흔히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경쟁률과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지원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이상의 경쟁률을 확보하면 합격선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